

력이다. 그러나 시민적 영유능력(領有能力)=지배력의 보완으로서 그 자체가 하나의 경제적인 힘(force)이다. 이 폭력이 구사회(舊社會)의 폭력인 한(限), 그것은 아직 토지소유의 지배형태이며 그 자체로서는 ‘신사회(新社會)를 잉태한’ 모태(母胎)의 경제외적(經濟外的) 지배력이다. 그러나 이 경제외적 지배력이 신사회를 낳는 구사회 전체의 조산부(助産婦)인데, 이는 시민적 영유=지배력을 보완하는 역할을 한다.”⁵¹⁾

「諸形態」에 나타난, 본원적 축적과정에 있어서 폭력적 지렛대-국가권력에 관한 마르크스의 파악은, 본고 제2장 제3절 2.의 「자본-국가와 폭력」 및 3.의 「본원적 축적과 폭력」과 연결되어 있다.

제3절 후기 마르크스의 폭력 개념

— 『자본론』을 중심으로 —

1. 상품-화폐 관계와 폭력

1) 富의 기본 형태-상품의 이중성

마르크스는 『자본론』 제1권의 글머리에서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이

51) 平田清明 「マルクス研究におけるフランス語版<資本論>の意義」(上)『思想』539號 (1969年 5月), 38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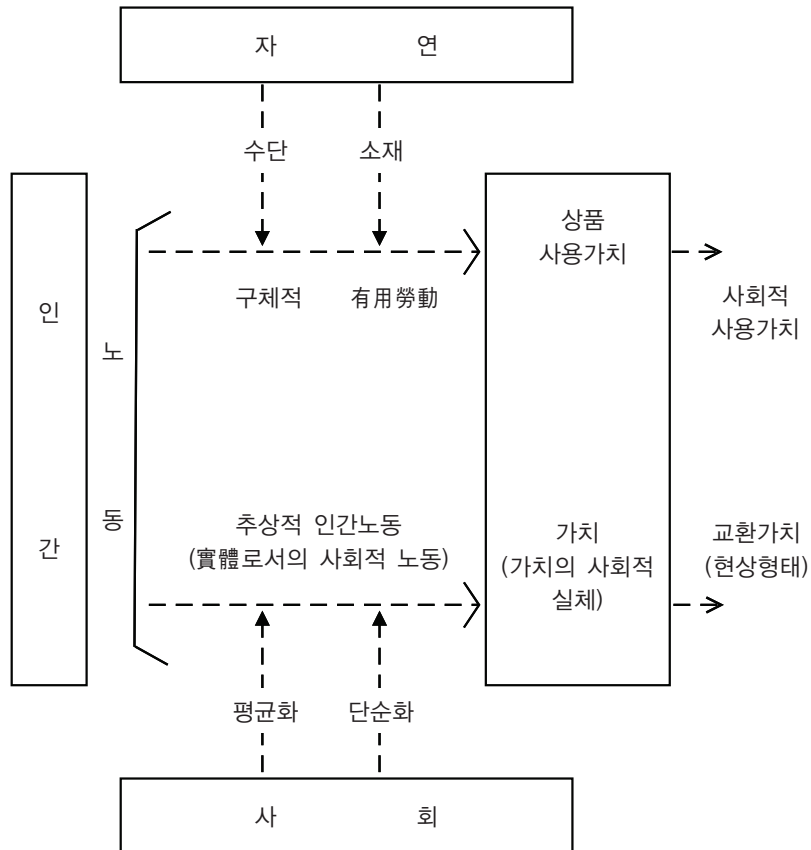
지배하는 사회의 富는 ‘방대한 상품 집적(集積)’으로 나타나며, 개개의 상품은 이러한 富의 기본형태(Elementarform)로 나타난다. 그러므로 우리의 연구는 상품의 분석으로부터 시작된다”⁵²⁾고 말한다. 마르크스는 상품을 분석하는 데 있어 우선 하나의 요인인 ‘사용가치(使用價值, Gebrauchswert)’에 관해 고찰했는데, 이때 그는 또 하나의 요인인 ‘가치’를 사상(捨象)한 채로 연구했다. 이어서 ‘가치’에 관하여 고찰했는데 이번에는 ‘사용가치’를 사상(捨象)하고 연구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품을 전체적으로, 즉 사용가치와 가치의 통합체로 연구하여 상품이 내포하고 있는 모순을 밝히고 있다.⁵³⁾

여기에 ‘상품의 이중성’, 즉 사용가치(質的 가치)와 가치(量的 가치)의 이중성이 있다. 물론 상품은 인간에게는 외계에 존재하는 하나의 대상물이지만, 마르크스는 변증법에 따라 그것을 질과 양의 이중(二重)의 견지에서 관찰하고 있다(그림1 참조).

52) Marx 『Das Kapital』 MEW 23, p.49.

53) 宮川實 지음 두레 편집부 옮김, 위의 책, 33쪽.

〈그림1. 사용가치와 가치의 二重性〉



우선 첫째로 ‘질(質)’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상품은 어떤 종류의 인간의 욕망을 충족시키는 성질, 즉 유용성을 갖고 있다. 이 욕망이 가령 빵에 대한 것처럼 우리의 위(胃)에서 생기든, 영험에 대한 것처럼 환상에서 생기든 아무래도 좋다. 物에 이러한 유용성이 있기 때문에 그 物

은 사용가치가 되는 것이다. 物이 누구에게도 전혀 무용(無用)하다면 그것은 폐물로서 내버려지고, 따라서 상품으로서 교환되지 않게 된다.

둘째로 ‘양(量)’이라는 측면에서 바라보면, 상품은 교환가치를 갖고 있는 듯한 모습을 드러낸다. 여기에서 교환가치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품과 어떤 상품이 교환될 경우의 상대적인 수량상의 비율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교환가치는 상품의 교환과정에서 생기는 하나의 현상형태에 불과한 것이다. 어떤 상품이 다른 상품과 일정한 분량관계로 교환되는 이상 사용가치가 다른 이들 상품 속에는 이미 교환가치의 기본이 되는 공통적인 것, 즉 가치가 존재하고 있어야 한다.⁵⁴⁾

마르크스는 우선 소재적 부(素材的 富; 사용가치)에 의거하여 말하면서 곧장 사용가치 분석으로 옮겨가는데 이 ‘기본형태(Elementarform)’는, 교환 가치(交換 價值; Tauschwert)로서 富의 기초인 한(限) 기본적으로 이중의 의미를 갖고 있다. ‘Elementar’ 또는 ‘Element’는 한갓 요소라는 의미를 지닐 뿐 아니라 모든 富를 지탱하는 토대(土臺)·장소를 의미한다. 후자(後者)의 의미를 특별히 강조할 경우 상품 형태는 자본주의적 생산양식의 ‘Elementarform’이 된다.⁵⁵⁾

자본제 생산양식의 ‘Elementarform’으로서의 상품형태론은, 상품군(商品群)이 만들어 내는 사회관계의 형태를 상정하고, 가치형태라는 사회관계의 기초적인 장면에 의거하여 구조 분석을 상정한다. 그러므로 상품형태론(가치형태론)의 분석 대상은 ‘상품군(商品群)이 만들어 내는 사회관계의 구조’ 그 자체이다.

이렇게 마르크스의 상품형태론은 자본제 생산양식의 핵심을 해명

54) 越村信三郎 지음, 김진방 옮김 『圖解 經濟原論』(서울: 미래사, 1986), 37~38쪽.

55) 今村 仁司 지음 『暴力のオントロジー』(東京: 勁草書房, 1992), 46쪽.

하는 데 무기를 제공하는바, 『자본론』 전체를 위한 기초론(基礎論) 또는 『자본론』 전체를 향한 ‘방법서설(方法敍說)’이다. 마르크스의 이 ‘방법서설’을 今村 仁司에 따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상품형태론(가치형태론)은 자본제 생산양식의 ‘가장 추상적인’ ‘가장 일반적인 형태’이다. 상품형태론은, 자본제 생산양식의 ‘Elementarform’이며, 압축해서 말하면 자본제 생산양식 그 자체이다. 그리고 이 점이 자본제 생산양식의 특수한 역사성(歷史性)을 보여준다.

둘째, 상품형태 또는 가치형태는 가치가 교환가치로 되는 형태 또는 장소이다. 혹은 가치형태는, 교환가치를 가치의 현상형태(現象形態)로 삼는 ‘Element(장소)’에 다름 아니다. 이 ‘Element’는 상품들의 사회관계, 상품들을 매개하는 인간들의 사회관계이다.

셋째, 상품형태 또는 가치형태는 노동의 생산물을 상품으로 만드는 ‘Element(장소)’이다. 가치형태라는 사회관계(현실적으로는 교환과정)가 존립하지 않는 한(限), 노동생산물은 본디 그대로 노동생산물이며 상품으로서 존재할 수 없다. 가치형태는 노동생산물을 상품으로 만들고, 사용가치로 하여금 독자적인 형태 규정성<形態 規定性>, 교환가치의 질료적(質料的)인 담지자(Träger)>을 지니게 하는 오르가논(Organon)이다.”⁵⁶⁾

2) 폭력의 부재적(不在的) 현전(現前)

마르크스의 ‘실체’로서의 사회적 노동(추상적 인간노동)은, 구조의 결과로서의 상품(직접적으로는 구조의 한 계기를 이루는 구체적인

56) 위의 책, 50쪽.

생산노동의 결과로서의 상품) 가운데서 작용하고 있는 경우에만 존재하지, 그 자체로서는 존재할 수 없다. 마르크스가 지적하듯이 사회적 노동 또는 일반적·추상적 인간노동은, 상품체(商品體, Warenkörper)를 어떻게 분석할지라도 ‘발견’할 수 없다. 따라서 사회적 노동(추상적 인간노동)은, 상품들의 사회관계(가치형태)의 행태를 서술(darstellen)함으로써만 그것의 현전(現前)을 지적할 수 있다. 사회관계야말로 사회적 노동 그 자체이며, 사회관계가 물리적인 의미가 아닌 한(限) 사회적 노동을 발견할 수 없다(不在한다). 이러한 부재적 현전(不在의 現前), 현전적 부재(現前的 不在)라는 기묘한 효과를 가져오는 것이, 사회적 관계로서의 사회적 노동, 구조로서의 사회적 노동이다.⁵⁷⁾

『자본론』에 대한 징후적 독해방법(徵候的 讀解方法)⁵⁸⁾을 통하여

57) 같은 책, 48~49쪽.

58) 알튀세르(Althusser)는 『자본론을 읽는다(Lire le Capital)』에서 마르크스의 ‘두 가지 독해방법’을 제시한다. 마르크스와 스미스(Adam Smith)의 관계에 의거하는 첫 번째 독해방법은, “스미스가 볼 수 없었거나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의 근본적인 누락으로 나타나게 되는 회고적(回顧的)인 독해방법이다.”<알튀세르 지음, 김진엽 옮김 『자본론을 읽는다』(서울: 두레, 1991) 20쪽.[Louis Althusser 『Lire le Capital』(Paris: François Maspero, 1968)]

이 독해방법이 보여주는 것은 “모든 지식활동은 원리적으로는 비전(Vision)의 단순한 관계를 인식하는 것으로 환원되고, 인식대상의 모든 성질은 여건이 갖는 단순한 조건으로 환원된다고 하는 지식관(知識觀)의 논리이다.”(알튀세르 지음 김진엽 옮김, 위의 책, 21쪽.)

그러나 알튀세르는 “마르크스에게는 첫 번째 독해방법과는 아무런 공통점이 없는 그와는 전혀 다른 제2의 독해방법이 있다”고 강조한다(같은 책, 21쪽). 그것은 ‘간과(看過)’ ‘보지 못한 것’의 문제가 단지 ‘보지 못한 것’ 그 자체의 —‘보이는 것’과의 절대적인 구별을 근거로 한— 부정성(否定性)에 기인(基因)하는 것이 아니라, “가시성의 場(field of the visible)과 비가시성의 場(field of the invisible) 사이에 필연적으로 존재하는 비가시적인 연관, 즉 가시적인 場의 구조가 낳는 필연적 효과로서 비가시성의 감춰진 場의 필연성

‘부재적 현전(不在的 現前)’을 이끌어내는 알튀세르(Althusser)는, 『자본론』 제2권의 서문(MEW 24, pp.21~24.) 등에 등장하는 ‘Darstellung’에 주목한다.⁵⁹⁾ ‘Darstellung’은 마르크스 가치론의 인식론적인 핵심개념

을 정의하는 그런 연관에 관한 문제이다.”(같은 책, 22쪽.)

그렇다면 간과는 보고 있는 것을 보는 것은 아닌 것으로 되고, 간과는 더 이상 대상에 관련되지 않고 시각 그 자체에 관련된다. 간과는 비전과 관련된 간과이다. 그렇다면 비(非)비전은 비전에 내재하는 것으로서 비전의 한 형태이며, 따라서 비전과 필수적인 관련을 갖는다(같은 책, 24쪽).

‘보지 못하는 것’의 문제는 결코 ‘결여로서 보지 못함’의 문제가 아니다. 今村 仁司는 이와 관련하여 “비가시성(invisible)을 가시성(visible)으로 삼는 것은, 낡은 이론적 문제설정(problématique)을 전면적으로 변형하여 새로운 이론적 문제설정을 형성하는 것에 다름 아니다. 알튀세르의 비유를 빌린다면 ‘지반(地盤)’의 변화, ‘이론적 생산양식’의 혁명이 문제로 된다. ‘주체’는 ‘이론적 생산양식’의 변형 과정에 의하여 할당되는 역할을 하고, 낡은 ‘지반’으로부터 새로운 ‘지반’으로 몸을 옮김으로써 이전에 보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볼 수 있게 된다.”고 말한다<今村 仁司 『歴史と認識』(東京: 新評論, 1985), 74쪽>. 알튀세르는 이와 같은 ‘제2의 독해방법’을 ‘징후적 독해방법(徵候的 讀解方法; symptomatic reading)’이라고 부른다<今村 仁司 『思想の星座』(東京: 洋泉社, 1987), 195쪽>.

- 59) 이 같은 『자본론』 해석방법은 자본주의 구조를 하나의 표현(representation) 구조로, 즉 체제가 자기 자신을 제시함과 동시에 개별적 주체로부터 자신을 은폐하는 구조로 환원시킨다. 실제로 알튀세르는 제시(Darstellung)라는 용어(교환가치로서 가치를 ‘제시’한다고 하는 등)를 꼬집어 내어 이를 ‘전체 마르크스주의 가치론의 핵심적인 인식론적 개념’이라고 부르면서, 그것이야말로 자본제적 생산양식이 어떻게 ‘작가 없는 극장’으로서 기능하는가를 설명해 주는 용어라고 말했다. 극장은 연극이 관객에게 제시되는 장소인바, 연극은 작가가 없이 관객을 속일 수도 있는 것이다<캘리니코스 지음, 황석천 옮김 『마르크스주의의 미래는 있는가』(부산: 열음사, 1992) 128~129쪽.[Alex Callinicos 『Is There a Future for Marxism?』(London: Macmillan, 1982)]>. 마르크스는 ‘연출=Darstellung, representation, mise en scène’이라는 연극의 비유를 자주 사용했다. 사람들이 무대 위의 행위, 즉 효과(effect)를 보면서 현실(reality)의 충실한 복사(copy)를 한다고 믿기 때문에 마르크스가 이 말

이며, ‘구조가 그 결과 앞에 현전(現前)한다’는 ‘구조적 인과성(구조적 인과관계; structural causality, causalité structurale)’⁶⁰⁾과 관련이 있는 말이다.

‘Darstellung’은 ‘présentation’, ‘exposition’, ‘position du présence’ 등의 의미를 포괄한다. 여기에서 요점은 ‘présence(現前)’에 있다. ‘표상(Vorstellung)’이 그 배후에 무엇인가를 상징하는 데 비하여 ‘Darstellung’은 그 배후에 아무것도 상징하지 않는다. 현전(現前)의 장(場)에, 거기에(da) 있다는 말이다. ‘Darstellung’은, 첫째 ‘결과 속에 구조가 현전하는 것, 결과 속에

을 사용한 듯하다<알튀세르 지음 김진엽 옮김, 위의 책, 431쪽>.

한편 들뢰즈(Deleuze)와 가타리(Guattari)는, ‘알튀세르가 생산을 구조적·극장적 표상[劇場的 表象; structural and theatrical representation(Darstellung)]과 동일시(同一視)했음’을 비판하면서 “극장이 생산의 모델로 여겨지고 있다”고 말한다<들뢰즈·가타리 지음, 최명관 옮김 『앙띠 오이디푸스』(서울: 민음사, 1994), 449~451.참조[Gilles Deleuze · Félix Guattari 『L’Anti-Oedipe』(Paris: Les Editions de Minuit, 1972)]>.

- 60) 알튀세르에 의하면 사회구조는 근본적으로 이질적인 구조들로 이루어진 복합적 구조이다. 이러한 구조를 갖는 사회 전체와 구조들 사이의 효과(효력; effect)를 고려하기 위하여 새로운 이론이 필요하다. 마르크스 이전에 ‘effect’ 고려할 수 있는 두 개의 체계가 있었다. 하나는 데카르트(Descartes)의 기계론적인 모델·직선적 인과성(linear causality)이고, 다른 하나는 라이프니츠(Leibnitz)－헤겔 류(流)의 표현적 인과관계(표현적 인과성; expressive causality, causalité expressive)이다. 전자(前者)는 ‘전체’ 개념의 복합성과 양립하지 않으며, 후자(後者)는 ‘전체’ 개념의 기초인 요소들의 이질성과 양립하지 않는다. 그래서 역사과학, 즉 마르크스시즘은 새로운 인과관계－‘구조적 인과관계’를 필요로 한다는 것이 알튀세르의 논리이다. 알튀세르의 논리에 따르면 ‘지배 내 구조(支配 內 構造; structure in dominance, structure à dominante)’라는 복합적 총체(總體), 즉 지배 속에 구조화된 복합적인 전체(tout)는 ‘현존하면서 부재(不在)한 원인들로부터 비롯된 효과의 구조(structure of effects with present – absent causes)’이다.

현전하는 구조의 효과(effect; 효력)에 의하여 결과가 변용되는 것'이라는 개념규정을 갖는다. 'Darstellung'은 둘째로 '부재의 효과'라는 개념이다. 부재의 효과에 역점을 둘 경우, 구조의 효과는 '환유적(換喩的; métonymique) 인과성(인과관계)'이라고 불린다. 'Darstellung'이라는 구조의 행동은, 결과에 있어서 구조의不在인 동시에, 구조 또는 원인의 결과 가운데로 육박하는 현전·내재·실재를 포괄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지니고 있다.⁶¹⁾

알튀세르가 'Darstellung'을 선정한 것은 매우 흥미롭다. 'Darstellung'이란, 상품형태론(가치형태론)에서 매우 두드러진 역할을 하는 은유 개념이기 때문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자본제 생산양식이라는 구조는, 상품·화폐·자본의 형태를 전개한 이후에, 생산론(生産論) 속에서 비로소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 상품론이야말로 자본제 생산양식의 구조를 정의하는 것이다. 자본제 생산양식이라는 구조는 상품형태(요소, 결과) 속에서 '현전하는 한편 부재'한다. 그리고 구조(하부 구조)는, 어떤 국면에서도 어떤 요소에 있어서도 항상 '부재적(不在的)으로 현전'하고, '현재적(現前的)으로 부재'한다.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자본제 생산양식의 구조 규정의 장소로 보고 있는 자본제 생산과정도, 자본제 생산양식의 구조 자체가 아니라 생산양식의 결과·요소이다. 자본제 생산과정(요소·결과·부분) 속에서 자본제 생산양식의 구조는 '현전하는 한편 부재'한다.⁶²⁾

'상품·화폐·폭력'의 문제가 논의의 주제임에도 불구하고 관계없는 듯한 사항에 대하여 장황하게 설명했다. 언뜻 보기에 멀리 돌아가는 듯 보이나, 자본제 생산양식과의 관련 속에서 상품형태론의 의

61) 今村 仁司, 『暴力のオントロジー』, 55~56쪽.

62) 위의 책, 57쪽.

의·자리매김을 하는 일이 불가결하다. 왜냐하면 ‘상품형태론에 있어서 폭력의 부재적 현전(不在的 現前)’의 문제는, 바로 ‘자본제 생산양식의 구조에 내재하는 폭력’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상품형태론 또는 화폐형태론이 원초적(原初的)이며 기초적인 형태(Elementarform)를 띤 자본주의적 생산양식 그 자체일 경우 상품·화폐·폭력의 내밀한 관계는, 비록 원초적·추상적인 형태를 취하더라도 사회구조 전체에 널리 통용되는 보편적 의미를 갖는다고 말할 수 있기 때문이다.⁶³⁾

3) 마르크스의 가치 형태론과 폭력

자본제 생산양식의 구조에 내재하는 폭력(내재적 폭력)을 마르크스의 가치형태론과 관련시켜 설명함으로써, 상품-화폐-폭력의 연관성을 분명히 알 수 있다. 먼저 마르크스의 상품형태=가치형태의 전개도식(4가지 형태)을 살펴본다:

㉠ 제1형태-「단순한, 개별적인, 또는 우연적인 가치형태」⁶⁴⁾

x量の 상품A=y量の 상품 B

20미터의 아마포=1벌의 저고리

㉡ 제2형태-「전체적인, 또는 전개된 가치형태」⁶⁵⁾

z量の 상품A=u量の 상품B,

또는=v量の 상품C,

또는=w量の 상품D,

63) 같은 책, 57~58쪽.

64) Marx 『Das Kapital』 MEW 23, p.63.

65) Ibid., p.77.

또는 = x 量의 상품E,

또는 = 기타 등등

20미터의 아마포 = 1 벌의 저고리,

또는 = 10파운드의 차(茶),

또는 = 40파운드의 커피,

또는 = 1쿼터의 밀,

또는 = 2온스의 금(金),

또는 = 2분의 1톤의 철(鐵),

또는 = 기타 등등

㉞ 제3형태－「일반적인 가치형태」⁶⁶⁾

1 벌의 저고리	=	}	20미터의 아마포
10파운드의 차	=		
40파운드의 커피	=		
1쿼터의 밀	=		
2온스의 금	=		
2분의 1톤의 철	=		
x 量의 상품A	=		
기타 등등의 상품	=		

66) Ibid., p.79.